

○ 公園의 語源

公園이란 말은 唐代의 貞觀年中(627-649)에 李廷壽가 쓴「北史」란 史書속에 나온다한다. 그러나 그때의 뜻은 요즘의 뜻과 判異. 王侯나 貴族의 領地를 말한 것. 日本 國立公園誌에 의하면 日本에선 島根縣鷲原八幡社에 奉納된 額字에 처음 나타나 있다는데 天保3年(1832年)의 일이지만 그 뜻 또한 現在와는 距離가 먼것인데 即 神社의 境內地를 指稱한 것이라고. 現在의 뜻으로 使用된 年代는 正確치 않으나 明治6年(1873年)의 太政官布達 第16號에 나오고 37年 뒤인 1910年 坪谷水哉著의 「明治百年東京繁昌記」에 國立公園이란 單語도 나왔다고. .... 우리나라서 公園이란 말이 생긴것은 果然언제부터 일까? 李朝때 南山을 漢城公園이라 불렀다는 說도 있으나 正確치 않으며 造景史에 의하면 1897年(1894甲午, 更張직후인듯) 「부라운」이란 英國設計士가 과고다公園(當時塔洞公園)을 처음設計한 것이 始初라고 記錄되었다고.

○ 大萐山 道立公園은 2 個道가 갖는 道立公園

大萐山은 몇번째 道立公園이며 어느 道에 있는지요? 이런 質問을 받은 雜學子는 잠시 어리둥절 할수 밖에... 現21個의 道立公園 중 9번째로 77년3월23일에 지정한 大萐山 도립공원은 全北(完州. 面積38.1km<sup>2</sup>)의 도립공원이며 17번째로 80년5월26일 忠南도가 지정한 大萐山 도립공원은 總面積 24.54km<sup>2</sup>(論山15.98錦山8.56)에 달하는데 兩道에 걸쳐있긴 하나 똑같은 이름의 道立公園이 複數로 되있는 것이 어색. 國立公園의 경우는 智異山이 3個道, 閑麗海上, 俗難, 內藏, 伽倻, 德裕, 北漢, 月岳이 모두2個道에 걸쳐있어도 自然스러운데 同一名稱의 道立公園이 두도에 걸쳐 있다는 것은 說明하기 어려운일. 그래서 이번엔 建設部에서 立法豫告한 自然公園法改正案을 보면 第11條3項에다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條項을 新設하고 郡立公園도 適用케 한 것이 進一步의 發展相. 「2以上の 道の 行政區域에 걸쳐 있는 公園計劃을 立案하고

자 할 때에는 關係道知事는 協議에 의하여 共同으로 立案하거나 立案할 者를 定하여야하고 이 경우의 公園計劃은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고 못박아놓았다.

○ 飛行空中觀光은 老弱者 핑계한 特殊層의 占有物?

우리나라에도 空中觀光헬機가 나르기 始作하여 注目되고 있지만 얼마전 TV서 放映한 美國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의 空中觀光 飛行機 추락참상과 火災의 現場사진은 無言의 敎訓. 그랜드캐년의 경우 日平均 274회의 飛行機가 公園上空을 날아 年中10萬台가 부르렁거린셈. 雄壯한 規模, 美國의 이 代表的自然公園과 많은 自然 探訪客이 각다귀떼같은 이 騷音에 진질머리를 앓고 不滿을 토로한다고. 1시간 125\$(원화 약11만원)의 헬機탑승관광료부터가 노약자 이용의 名分 아래 장사하는 이 空中관광전? 을 「돈많은 특수층의 占有物이라」고 非難하는 소리도 나오고 환경 파괴 실태조사도 하고 있다고.

○ 쪼아진天王峰 慶南人の 氣像

慶南신문 6.11자에 의하면 83年 慶南도에서 헬機까지동원. 경남에 위치한 지리산 頂上 천왕봉에 「경남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란 글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웠는데 타도서 말썽이 있었지만 그대로 두었더니 「경남」 2자가 어느새 망치로 쪼아졌다고. ...어차피 몇백년 지나면 글귀는 소멸되는 것이요, 天王峰은 永遠하니 두 글귀를 넣은자와 쪼아린자 그 일을 잊어버리리라.

○ 忘暑는 避暑?

더위를 잊게해주는 듯한 바람이 北岳에서 이웃 社稷公園의 綠香까지 휘감아 간간히 불어준다. 壁에 걸린 白頭山天池의 神祕한 물속을 凝視하면 찬바람이 솟아나듯 더위를 잊는다. 그리고 台灣墾丁國家公園서 보내준 시원한 月曆의 글뜻을 되씹어보는 것도 瞞수 없다. 「孝子子孫 留下 美好的樂土 替世世代代創造瑰麗的明天」... 숲속이 가까우니 이 또한 忘暑. (珠)